

베트남, 호찌민 국제금융센터(IFC) 및 다낭 역내금융센터 설립 추진

(4.16, 금융중심지육성2팀)

- 2045년 고소득 국가 도약과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비전으로 호찌민에 국제금융센터(IFC), 다낭에 역내금융센터(RFC) 설립 계획 본격화
 - 동 프로젝트는 영국 외교개발부(FCDO)의 후원으로 TheCityUK가 2022년 12월부터 지원 중으로, 2023년 11월에는 베트남 투자청(FIA)과 양해각서 체결로 공식화
 -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성공적인 금융센터 운영 경험으로 베트남의 금융허브 구축에 실질적 조언과 전략적 지원이 가능한 파트너로 평가

- 2045년 고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Vision 2045’ 를 추진 중이며,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확대 및 디지털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
 - 금융허브 구축은 핵심 전략 추진 수단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금융 포용성 제고 △녹색금융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
 - 영국-베트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FTA 체결에 기반하여 양국 간 금융·투자 협력 강화 차원에서도 중요

- TheCityUK는 FCDO의 지원을 받아 UK-Vietnam IFC 워킹그룹 및 다수의 분과 그룹 운영을 통해 전략 전수 중
 - 해당 그룹은 베트남 정부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실무 중심(practitioner-led) 접근법으로 법·제도적 과제, 투자자 수요, 규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캠브리지대학교와 협력하여 FDI 유치 역량 제고를 위한 리더십 교육과정 2개 공동 개발·운영 중

□ IFC 구축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 정치국(Politburo)에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 권고사항 제시

〈정책 권고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정치적 지원 확보	고위급 정치적 지지와 지속적인 정책 일관성 확보
단계별 개발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속도로 점진적 IFC 구축
온쇼어(현지) 거점 확보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있도록 물리적 입지 확보
금융개혁과의 정합성	기존 금융개혁 과제와 조화를 이루는 설계 필요
하이브리드 모델	완전한 금융허브로 발전 가능한 유연한 모델 제시
중점 분야 선정	녹색금융(Green Finance), 핀테크(FinTech), 자본·원자재 시장 우선 개발
국제 모범규제 도입	국제 기준 기반의 규제체계 수립(단, 베트남 법률하에 운영)
인프라 및 인재 육성	고급 금융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유치 전략 수립

□ 성공적인 IFC 구축 시 기대되는 효과

- 국제 및 역내 투자유치 확대, 금융포용성 제고, 기후탄력적 인프라 조성
 - 베트남의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 고용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 연계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유도
- 베트남이 아시아 주요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비전 제시

□ 프로그램 참여 기관

- (법률·컨설팅·금융기관) Michelmores, Clifford Chance, Simmons & Simmons, Allen & Overy, Hogan Lovells, Freshfields, KPMG, Fidelity, ACCA, ICAEW, CISI, Standard Chartered, HSBC, London Stock Exchange
-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영국 정부, 주베트남 영국대사관, 호찌민 영사관, 주베트남 영국상공회의소(BritCham), British Corporate Advocacy Council(BCAC) 및 회원사